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지문회사인 Manchester Trad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會國際部(TEL:553-0941/7)로 연락 바랍니다.

1. 美, 영상기기 出荷 호조

美 전자메이커들의 5월중 영상기기 출하동향과 관련, 직시관컬러TV, 거치형 VCR, LD플레이어가 호조를 보이는데 이어 투영형 TV 역시 지난해 실적을 갱신하는 등 출하대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고수준이 높은 카메라일체형 VCR의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을 밑돌았다.

美 전자공업회(EIA)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중 출하대수가 호조를 보였던 부문은 직시관컬러TV로 1백29만대가 출하돼 전년동기실적에 비해 4.8%(약10만 5천대 증가) 증가했다. 특히 가운데 30인치 이상의 대형직시관컬러 TV 신장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의 30인치이상의 직시관 출하는 전년동기 실적보다 57.9%나 웃돌았는데 그 결과 투영형TV를 포함한 전TV출하대수에서 30인치이상 직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에서 3.0%이 높아졌다.

규격별 구성비를 보면 전체출하대수중 28%를 차지하는 25~27인치가 6.4% 늘어난 데 이어 44%를 차지하는 19~20인치 역시 전년수준보다 0.2% 증가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19인치이하의 2.2%나 감소했다.

이밖에 거치형VCR이 꾸준한 출하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VCR과 컬러TV를 일체화한 콤보(비디오비전)도 높은 신장률을 지속하고 있어 시장개척이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카메라일체형 VCR의 경우 여전히 시중 재고 수준이 높아 출하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

다. 여론조사기관인 퍼스널테크놀러지리서치에 따르면 VHS-C와 VHS 풀사이즈는 올들어 시장 가격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8mm는 여전히 가격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8mm와 VHS-C의 평균가격차는 지난해 7월 대당 약 90달러에서 4월에는 약 40달러까지 그 격차가 축소됐다.

▲ 5월중 미국영상기기 출하대수

제 품	5월 (주간)			1-5월통기(21주간)		
	'92년	'91년	신장률(%)	'92년	'91년	신장률(%)
컬러TV	1,291,964	1,187,314	+8.8	7,097,371	6,821,233	+4.0
VCR일체형컬러TV	62,501	43,452	+43.8	310,881	254,661	+22.1
투영형TV	17,476	17,342	+0.8	121,336	110,371	+9.9
거치형 VCR	740,948	552,265	+33.6	4,031,564	3,369,731	+19.6
컬러일체형VCR	216,522	216,884	-0.1	908,889	845,152	+5.9
LD 플레이어	10,538	8,429	+25.0	75,637	56,445	+33.0

28: ※ 콤비플레이어포함, 가리오케 제외

2. 美, 무역대표부(USTR)의 최근 동향

◇ 스페셜 301조

'92년 4월 29일 USTR은 스페셜 301조 해당국가를 발표했다.

스페셜 301조에 따라 USTR은 다음사항을 분류하게 되는데 충분한 IPR 보호 거부 IPR 보호에 따른 개인의 사장접근을 거부하게 된다.

대만은 새로운 IPR 보호법안의 시행 미흡으로 우선 협상대상국(Priority Country)으로 지정되며, 한국은 감시국(Watch List)에서 우선 감시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상향 지정되게 된다. 한국은 IPR 보호법안의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하고 USTR은 한국의 IPR 보호법

안의 시행정도를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한다. IPR 보호 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USTR은 IPR 침해의 물질적 보상과 피해구제제도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IPR 보호의 충분한 시행을 위한 평가의 대상으로 미국의 피해구제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 특허침해 (Patent Infringement)

특허 소유주는 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미국 법원은 특허 침해로 상품의 제조, 사용, 판매 또는 가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침해자는 제품의 파기, 또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하며, 침해제품으로부터 얻은 이윤을 특허 소유주에 보상해야 한다.

특허 소유주는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물질적 피해보상 요구 권리가 있다.

◇ 상표권 침해 (Trademark Infringement)

미국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자는 침해를 막기 위해 피해구제제도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미법원은 침해자측에 레벨, 싸인, 인쇄물, 패키지, 포장지, 용지, 광고물 등에 등록상표를 부착할 경우 파기를 명할 수 있다.

등록자는 물질적 피해 및 침해자의 이윤, 제조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침해자의 이윤은 정상경비를 제외한 매출액 기준이며, 재량에 따라 침해자의 조치가 의도적일 경우 실질경비의 3배까지의 피해 보상을 명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Copyrights Infringement)

상업적 잇점 또는 개인적 재정소득을 위하여 계약적 저작권 침해를 할 경우 형사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는 피해를 받은 만큼의 실질적 피해 보상 자격이 있다.

상황에 따라 저작권자는 침해건마다 \$ 20,000에 이르는 법적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침해가 계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최고 \$ 100,0

00에 이르는 법적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3. 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반덤핑 조사

ITC의 피해 예비판정 이후 ITA는 계속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ITA의 예비판정은 '92년 8월 31일 예정이다.

ITA는 반덤핑과 관련하여 한국산 C-TV에 대한 (91. 4. 1~'92. 3. 31) 연례제심에 착수, 최종결과는 '93. 4. 30 발표 될 예정이다.

제심 대상업체는 코스모스전자, 대우전자, 금성사, 킨트로닉스, 삼성전자, 삼원전자 동국전자 등이며, ITA는 대만산 C-TV (90. 4. 1~'91. 3. 31)에 대한 연례제심 결과를 발표 ('92. 1) 했다.

-C/TV 덤핑마진율 (대만업체)

업 체 명	마진율	업 체 명	마진율
Action Electronics co.	1.64%	Proton Electronic Ind.	4.13%
Aoc Int'l, Inc.	23.89%	Rca Taiwan Ltd.	0.41%
Funai Electric CO., Ltd	23.89%	Sampo Corp.	0.78%
Hitachi Television Ltd.	23.89%	Sanyo Electric (Taiwan) Co.	4.66%
Kuang Yuan CO., Ltd.	0.00%	Shinlee Corp.	23.89%
Nettek Corp., Ltd.	23.89%	Tatung Corp.	0.23%
Paramount Electronics	23.89%	Teco Electric And Machin.	23.89%

4. ITC (Int'l trade Commission)의 반덤핑 조사

ITC는 '92. 6. 4 DRAM 반덤핑 조사에 대한 피해 예비판정 발표, '92. 6. 8 ITA에 판정결과를 통보했다.

6명의 ITC 조사관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산 DRAM 수입에 의한 피해 긍정판정 했으며, ITA는 공정가격이하 (less than fair value) 판매 여부를 조사 진행중이다.

ITC의 예비판정과 관련한 보고서는 '92. 6. 22 일 이후에나 입수가 가능하다.

ITC는 미국내에 11개 반도체공장이 있음을 판정하고, '91년도 미제조업체 생산금액은

616, 443 천 \$이며, 생산 등 관련 종업원수는 5, 355명이다.

미국의 DRAM TNDLQDIRDMS 1, 177, 241 천\$이며, 수입국은 한국의 일본, 대만, 영국, 독일 등이다.

5. 美세관 (Customs Service) 동향

미국제무역재판소 (CIT)는 "Camcorder"는 텔레비전 카메라와 테이프레코더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라는 세관의 분류방법을 기각하고 텔레비전 카메라 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관도 라디오류의 수입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에 동의, MWO, Radio, TV, Computer 등의 수입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FCC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동향

FCC는 미국내에서 방송허가를 심사하는데, TV 방송을 HDTV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에 따라 방송주파수를 배정, 방송국에 2년간의 기간을 주어 HDTV Channel을 신청토록 하고 HDTV 시설을 설치토록 하기 위하여 3년간의 기간을 부여한다. 도입단계에 있어서 HDTV 시스템에 대한 기술 표준작업에 착수, 내년도에 표준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HDTV로의 완전 전환은 2008년도로 전망된다.

7.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 Technology)의 최근 동향

NIST는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FIPS) 128, Computer Graphics Meta file (CGM)에 대한 개정작업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 의도는 ANSI/ISO 표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8. 우루과이 라운드 (Uruguay round) 진행 상황

GATT 협상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업 및 시장접근, GATS와 관련하여 교착상태에 있다.

'92년 5월 18일 18월 OECD 장관회담에서 EC는 미국이 서비스 분야의 협상을 한다면 농업 보조금에 대한 협상의도를 표명했다.

美의회는 GATT 협상에 대한 인내의 한계신호를 행정부에 전달했으며, 美정부에 의해 타결을 본다 할지라도 의회비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Fast-Track 권한에 따라 협정 서명 90일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서명후 90일동안 입법화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수정없이 전체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9. 북미자유무역 협정 (NAFTA) 5월 협상 결과 발표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3국은 '92. 4. 27 (Mexico City)과 5월 중순 (토론토) 협상회의 결과 NAFTA 협상은 몇개의 문제로 이견이 좁혀졌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에너지 및 금융서비스 (미국측 주장) 원산지 규정 (멕시코측 주장), 섬유 (캐나다측 주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와 관련하여 특별 원산지 규정 (Special Rules of Origin)이 협의될 예정인, 재무차관보인 John Simpson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부가가치에 기준한 규정이 아니라 관세 분류에 따른 규정이라고 언급했다.

협상국 대표들은 전자장비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한 NAFTA 원산지 규정에는 부가가치 충족요건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최근 협상결과 컴퓨터와 TV 등 전자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미국은 컴퓨터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안으로 3가지 구상품(Mother Board, Flat Panel Display, Hard Disk Drive) 중 2가지 부품이 원산지가 NAFTA産이어야 무관세 취급을 받는 방법 또는 40% 미만의 域外부품을 사용하여야 원산지로 인정되는 안을 상정했다.

10. 무역확대 법안(Trade Expansion Act of 1992)의 개황

◇배 경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진행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며, 세입위 위원장인 Dan Rostenkowski는 '92. 5. 7일 주요 무역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하원 다수파 지도자인 Richard Gephardt와 하원의원 Sander Levin과 공동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의회에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상정된 법안내용과의 가교역할을 할 것인데 다른 무역법안들은 Rostenkowski 법안의 수정안에 따라 대체되거나 통합될 것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일본시장에 대한 미국의 자동화 및 부품 수출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미국 자동화 및 부품의 교역은 對日 무역적자 중 75%를 차지하며, 상원의원인 Max Baucus는 행정부에 日本의 자동차 산업에 301조 조사를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의 조항은 日本의 자동차 시장외에 더욱 확대되어 한국의 쌀수입에도 적용될 것이다.

◇ 동 법안의 주요 조항

日本과 관련하여 미 행정부에 자동차 및 쌀 시장에 있어서 각각 301조의 발동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및 대만과 관련하여 이 법안은 USTR에 301조 조사를 발동하여 미국상품에 대한 쌀시장의 개방을 모색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및 쌍

무협상을 통해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대한 협상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Super 301조의 권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 Super 301조는 1988년 잠정적으로 3년간 도입되었다.

Super 301조의 부활은 '92. 5. 7일 상원의원인 Riegle 및 Dachle,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Bill Clinton에 의해 도입된 상원법안 (Senate Bill) 등을 포함해 각종 상정법안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이 법안은 1988년 반덤핑과 상계관세의 우회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존의 조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행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의 약화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동 법안은 세관 현대화법(Customs Modernization Act)통합에 따라 세관 절차와 세관의 관세환급 조항 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이 법안은 대만으로부터 기계류 수입을 신규 자율규제협정 (VRA)이 체결되기까지 이전에 설정된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 법안은 무역협정준수법(Trade Agreements Compliance Act)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의회에 도입된 이 법안은 미국의 업체들이 쌍무무역협정에 대한 USTR의 연례재심을 촉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 동 법안에 대한 반응

행정부는 이 법안의 몇몇 조항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USTR의 Carla Hills는 Super 301조의 부활은 불필요하며 독단적인 Deadline을 강요할 경우 효과적이고 미묘한 협상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자동차 수출자율규제협정(VRA)은 미국내 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Carla Hills는 세입위에서 행정부는 자동차 및 쌀시장 조사에 대한 경정에 있어 융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우회조항(Anti-Circumvention Provision)은 정상적인 사업형태에 무법화 초래 가능성을 시사했다.

11. 미국의 산업동향 및 위치

경쟁정책위원회(종합무역 및 경쟁법안에 의해 신설)위원장인 Fred Bergsten은 미국의 산업정책은 미국 산업간에 보호주의 성향을 완화시키는데 이바지했다고 말하고, 미국 과학발전협회의 모임에 참석하여 미국은 산업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나, 조정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표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어떠한 제품에 있어 단편적인 쿼타와 수출진흥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 위원회는 1993년 의회 및 대통령에게 조정 산업정책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미국의 저축 및 부채의 수준, 의료 보험료, 산업구조의 악화, 경영자와 주주의 단기적 목표, 신규기술의 상업화,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전환하기 위한 세제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12. 서구 반도체업계 流通網 정비 박차

내년초부터 가동되는 유럽통합시장을 앞두고 유럽반도체메이커들이 유통체계 단일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모토롤라형사의 유럽현지반도체 그룹은 유럽내 판매가격의 단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럽내 판매조건을 단일화 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동사는 유럽단일시장을 겨냥해 지난 2년간 집적회로·메모리칩 등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단일화해 왔다.

가격단일화와 별도로 동사는 ECU 등 유통업자가 선택하는 화폐를 결제화폐로 채택할 계획

이며 범유럽차원의 기술·상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간에 유통되는 일체의 반도체에 대해 모토롤라는 현지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유럽반도체메이커들은 대부분이 통신·가전·자동차산업의 대형바이어들에게 직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데 유럽반도체시장에서의 20%는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판매되고 있다.

모토롤라뿐만 아니라 텍사스 인스트 루먼츠 유럽현지기업 등 여타 유럽반도체메이커들도 유럽단일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이로써 유럽의 유통체계가 단일화폐를 기반으로 단일가격리스트를 공급업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美·日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지난 '88년부터 범유럽의 조직망을 구축해 온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현재 국가간에 반도체의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일오더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메이커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유럽유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유통시장은 기업합병화 매수를 통한 대형화·집중화를 가속화했는데 이는 반도체가격 하락에 따른 유통마진을 커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유럽유통업계가 당하고 있는 애로는 대형반도체사용업체들을 둘러싼 유통업체간의 지나친 서비스 경쟁이다.

또한 기업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부어 왔으나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 공급 및 저장시스템의 집중화로 표현되는 기업규모의 경제효과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유통망집중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내 시스템에 집착하는 소형 유통업체들이 입지를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